

# 고흥군, 2026년 국가예방접종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 선정 성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질병관리청장 표창 수상 후 보건소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예방접종 주간(매년 4월 마지막 주)을 맞아 질병관리청이 주관한 '2026년 국가 예방접종 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예방접종을 향상과 체계적인 접종 관리, 안전한 예방접종 환경 조성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 받은 결과로, 전남 지역 22개 지자체 가운데 고흥군이 유일하게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영유아와 어르신 대상 국가예방접종을 비롯해 취약계층 접종 지원과 미접종자 관리 등 군민 중심의 맞춤형 예방접종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역 내 지정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접종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왔다. 특히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대상포진, 인플루엔자, 코로나 19 등 주요 예방접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며 고령층 감염병 예방에 힘써 왔다.

/강중수 기자

보성군, 전통차 체험관광으로 농업유산 가치 확산

보성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1호로 지정된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전통차(음식)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성 전통차 농업시스템'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한국차박물관, 가막재다원, 녹차향카페, 보림제다, 임병문다원 등 관내 23개 지정 체험장에서 운영되며, 참가자들은 차 만들기 및 차 체험, 차 음식 만들기, 차 훈증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인 이상 단체 관광객이며, 보성군은 차(음식) 만들기 체험비 1인당 2만 원 또는 차량 임차료(거리별 40만~55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광주광역시 관광협회(062-224-4486)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강중수 기자

해남,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비상방역체계 가동

해남군은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발생 증가에 대비해 5월부터 9월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병원성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지면서 집단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해남군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집단 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질병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발생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 끓여 마시기 △채소·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하지 않기 등이 있다.

/윤보현 기자

진도, 영화 관람료 1,000원...영화관람 활성화

진도군은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작은영화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5월 13일부터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진도아리랑시네마' 관람료 7,000원 중 6,000원의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문화생활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관람권은 '진도아리랑시네마' 누리집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차수별 1인당 최대 2매까지 예매가 가능하다.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의 예산은 약 2,877만 원으로, 약 4,796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부담 없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장흥,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 참여기업·청년 모집

장흥군은 오는 5월 19일까지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관내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청년 인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장흥군은 올해 기업 4개소와 청년 4명을 대상으로 총 7천만 원 규모의 인건비와 인센티브, 직장 적응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 기업은 장흥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선정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 차에는 최저임금 120% 수준인 월 258만 원 이상 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2년 차에는 고용유지와 지역 정착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백두연 기자

# 완도군, 블루카본 국제 포럼 성료 '해조류 탄소 중립 길 연다!'



완도 블루카본 국제 포럼 개최 사진

/완도군 홍보실 제공

전남 완도군은 '2026 Pre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기간인 지난 5월 3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완도 블루카본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블루카본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국내외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이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또한 어업인, 학생, 군민, 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해조류를 활용한 탄소 중립 실현 방안과 블루카본의 가치에 대해 경청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완도는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블루카본 산업의 최적지"라며 서두를 열었다.

덧붙여 "미국 항공우주청에서 완도의 친환경적인 해조류 양식을 이례적으로 소개한 이후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완도가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방향을 설정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

고 강조했다.

기조 연설자로 나선 에블린 엔 왕(Evelyn N. Wang) MIT 부총장은 과거 오존층 회복을 이끌어 낸 국제적 협력을 언급하며 "과학적 발견이 정책, 산업, 시민의 행동과 연결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MIT가 모든 건물을 연결해 융합 연구를 하듯 완도의 어촌 공동체와 글로벌 연구가 연결될 때 기후해법이 나올 것이다"면서 완도가 지닌 가치에 존중을 표했다.

이어 국내 최고 권위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포항공과대학교 이기택 교수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해양의 역할을 역설했고, 서울대학교 김중성 교수는 갯벌과 해조류의 생태계 가치와 블루카본으로서의 잠재력을 과학적 데이터로 증명했다.

/이문수 기자

